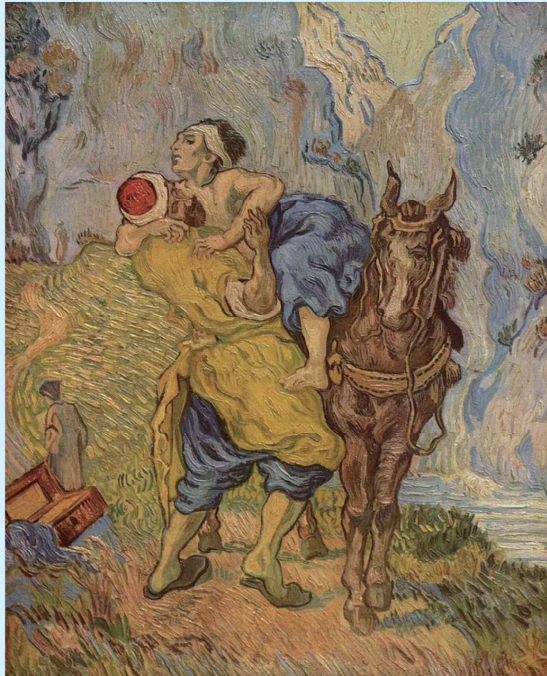




연중 제15주일(7월 13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카 10,25-37)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참된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루카10,29-37 참조) 고흐는 강도를 당해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강한 어깨와 허리를 가진 사마리아인이 힘을 다해 말 위에 올리는 모습을 화면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있습니다. 강도를 당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단단한 어깨에 의지한 모습은 상호 신뢰를 드러냅니다. 저 멀리 사라져가는 사제의 모습은 몽개뚱 표현되었고, 책을 읽으며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레위인도 보입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작가 빈센트 반 고흐 | 1890년, 캔버스에 오일 73x59.5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네덜란드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주소서.
- 주님, 저희 안에 당신의 사랑을 심어주시어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27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2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29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30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31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2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34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



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민 적이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물으십니다. 그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의 내용을 말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대로 실행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하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비유의 끝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사로잡혀 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먼저 자기 자리에서 떠나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의 처지를 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10,36-37]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말씀 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청년에게 희망 주기] 7월 28일~8월 3일 젊은이들의 희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본당 내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미사 지향 두기
- ② 쉬고 있는 주위 청년들에게 회두(신앙회복) 권면

내 삶 속에서

- ① 본당 내 모든 청년들을 위해 묵주기도 5단 바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